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지식재산정책 알림이로 나선다

트허청이 젊고 참신한 감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네티즌에게 알릴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을 선발
크하고, 지난 3월 25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12명으로 구성된 제3기 특허청 블로그 기자단은 오는 12월까지 지식재산 현장을 직접 취재하여 특허청 블로그(아이디어로 여는 세상:blog.daum.net/kipoworld)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발대식에서는 기자 임명장 수여에 이어 기사작성법 및 인터뷰 요령 등에 관한 전문 강사의 교육이 있었다.

이어 지식재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발명의 전당, 심판정 및 발명 교육센터를 견학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찬영(경상대학교 4학년)군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여 흥미로운 기사를 작성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소통을 위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제3기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운영에 있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동영상 현장중계 등 다양한 홍보 기법도 적용할 계획이다.

대학·공공(연)의 ‘흙속 진주 찾기’

트허청은 대학과 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특허기술을 발굴하여 산업계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유
크망특허기술 사업화 전략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유망특허기술 사업화 전략 지원” 사업에서는 1차적으로 각계 전문가를 투입하여 대학·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 중에서 시장지배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발굴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선별된 기술에 대해 특허분석 및 보강, 해외 권리확보지원, 기술수요시장 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특허 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지원한다.

최근 국가 연구개발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학·공공(연)의 특허출원 건수는 2008년 15,503건, 2009년 18,134건, 2010년 19,172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특허 건수도 2008년 38,078건, 2009년 42,366건, 2010년 44,56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특허청이 실시한 “2010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의 활용률은 30.3%로 민간 기업의 특허 활용률¹⁾ 56.5%에 비하면 아직도 저조한 편이다.

이는 대학·공공(연)이 특허 사업화에 따르는 기술가치평가, 기술수요기관 발굴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학·공공(연)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대학들이 국내·외에서 기술이전 성과를 올리고 있다.

1) 민간기업의 통계는 방어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함

세계최초 3D도면 디자인출원, 성공적 시행

특 허청은 2010년부터 1년간 시행된 3D 도면을 통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총 786건(전체디자인등록출원의 1.4%)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과 개인 출원이 9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품 개발 시 필수적으로 만들고 있는 3D도면을 별도 가공 없이 곧바로 출원토록 한 세계최초의 3D도면 출원시스템으로써 디자이너와 출원인의 편의를 크게 제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2억 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과 개인의 활용률이 높은 이유는 도면제작시간을 단축하여 빠른 권리화를 원하는 중소기업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1년도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개시

특 허청은 “제주시 등 10개 기초지자체에 대하여 2011년도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은 기초지자체의 지식재산 조례제정 및 전담조직 확보 등 인프라구축을 지원하여, 지자체가 지역 주민과 기업을 위한 교육 및 발명체험행사, 특허정보제공 등의 지재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공모를 통해 매년 5개 기초지자체를 지식재산도시로 선정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강원 원주시, 경북 안동시, 광주 남구, 대구 달서구, 충북 제천시, 2011년에는 경남 진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북구,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가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었다.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도시 조성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금년에는 10개 도시에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2010년도에 선정된 지식재산도시들은 지식재산 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행정적 지원의 인프라를 갖추고 총 76회 6,654명을 대상으로 지재산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대구 달서구는 2010년도에 “지식재산도시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토요가족 창의교실”, “신나는 발명체험 한마당”, “자연과 함께하는 가족 발명캠프”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경북 안동시는 전통문화유산인 고택의 12개 문중에 대해 휘장 제작 등 브랜드 사업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 밖에 광주 남구는 시민들이 직접 발명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발명공작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7건의 주민 특허를 등록하고 6,000여만 원의 로열티 수입을 올리는 성과가 있었다.

2011년도에는 새로 선정된 5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10개 지식재산도시에서 약 30,000명을 대상으로 지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약 17,000명의 주민이 발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35회의 발명 체험행사를 개최하며, 300여 건의 선행 특허·브랜드 조사 및 출원비용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진주시에서는 향토기업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의 이미지 및 가치를 극대화시킬 예정이고, 부산 북구에서는 전통시장의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 권리화 바람

경기도의 “임맞춤”, 부여군의 “굿뜨래”, 음성군의 “햇사래”, 정읍시의 “단풍미인”, 보성군의 “녹차수도 보성”, 동해시의 “동트는 동해”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공모한 지자체 공동브랜드(농·축산물, 식품 등)의 권리화 바람이 불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자체의 공동브랜드 출원건수는 2007년 1,356건, 2008년 1,632건, 2009년 1,728건에 이어 지난해 1,9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경북 경산시는 2006년에 1건, 2008년에 2건에 불과하던 출원건수가 지난해에 148건 (2010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출원건수 1위)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힘 내세요, 일본 특허출원인

특허청은 지난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동북지방 태평양연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특허출원인들이 정상적으로 특허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우선, 특허는 특허유지 수수료 등 특허료를 납부해야 그 권리가 유지되지만 이번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허료 납부기한을 지진복구 후까지 연장하였다.

둘째, 출원된 특허의 심사는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지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진행을 원하는 시점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특허심사 진행 중 출원인이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4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지만 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특허심사 결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건에 대하여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나 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진복구 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하였다.

그 외에도 다수의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상표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에 특허청에서 마련한 ‘일본 대지진으로 영향을 받은 특허절차의 구제방안’은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출원인들이 특허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출원이 거절결정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구제방안이 시름에 잠긴 일본 특허출원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